

진도군, 신규시책 115건 발굴 추진 박차

내년 주요 업무보고회 열어 대책 논의

민선 7기 공약 사업 이행률 제고 총력

진도군이 2022년 신규시책 115건을 발굴, 추진에 나선다. 진도군은 17일 "전남 서남해안 해양관광도시 자리매김을 위해 최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이동진 군수 주재로 민선 7기 역점 시책 추진상황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핵심 정책의 안정적 마무리, 내년에 추진될 주요 업무와 군정 방향을 점

검·공유했다. 민선 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맞춤형 시책 115건을 발굴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도로·교통·문화·관광 인프라 등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 분야의 계획과 구체적 실천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새롭게 도약하는 보배섬 진도군' 명제 아래 도시 발전 잠재력 극대화, 전남 서남해안 해양관광도시로의 기틀을 다져온 성과를 토대로 진도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동력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신규시책 사업은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진도군 희망브리지 청년창업 ▲소규모 HACCP 시설 지원 ▲산지 전복판매시설 구축 ▲상록난대수림 체계적 조성 ▲감염병 집중관리 시범마을 운영 ▲귀농인 창업 다각화 지원 사업 등이 제시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각 부서장은 내년 진도군을 이끌 핵심 역점 시책의 타당성,

주인 수해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군은 2022년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공약사업 이행을 제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동진 군수는 "군민들과 향우들이 진도군의 끊임없는 변화 의지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선 7기 핵심 시책 결실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12월 말 예산 반영과 함께 최종 확정돼 본격 시행된다. /진도=박세권기자



영광군, 공직자 청렴 콘서트 개최

영광군은 17일 "최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신뢰받는 청렴 영광군 실현을 위한 2021년 청렴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했다. 현장에는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신규 공직자 30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

거운 수 있는 주제를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구성됐다. 공직자 청렴 의지를 다지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출항기를 청렴의 미로 재해석한 판소리마당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의 고민을 상황극으로 표현한 연극 공연,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등이 펼쳐졌다. 기존 주입식 청렴교육보다는 자연스럽게 청렴을 제감하는 공직자 청렴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뒀다. /영광=김동규기자



목포시는 최근 울도1구 선착장에서 김중식 시장, 박창수 시의회 의장, 시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도 지방상수도 공급 통수식을 개최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로 인해 수돗물이 울도에 공급됨에 따라 섬 주민 200여명의 식수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울도 수돗물 공급 시작

내년까지 도서 해저관로 매설 완료 정주여건 개선

목포시 울도에도 수돗물이 공급된다. 시는 최근 울도1구 선착장에서 김중식 시장, 박창수 시의회 의장, 시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도 지방상수도 공급 통수식'을 개최했다. 울도에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주민 200여명(104세대)의 식수난이 해소됐다.

김중식 시장은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해온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기쁘다"며 "남은 사업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 도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식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총사업비 182억원(국비 127억원,

도비 12억원, 시비 43억원)을 투입해 북항-장좌도-울도-달리도-외달도 구간(14.8km)에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장좌도에 이어 울해 울도까지 통수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11월 달리도에도 수돗물 통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외달도까지 관로가 매설되면 도서지역 주민 숙원인 식수난이 완전 해소되고 목포시 지방상수도 보급률도 100%를 달성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2022년 해저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돼 외달도까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가 완성되면 물 걱정이 사라져 도서지역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숙원 사업임을 고려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불편 등에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나주신협 빛가람지점 오늘 공식 개점

자산 4천959억·조합원 2만5천여명 전남권 1위

나주신협 빛가람지점이 18일 공식 개점행사를 갖는다. 빛가람지점은 나주신협의 제1호 지점으로 속원 사업이었다. 나주신협은 1970년 3월 42명의 조합원으로 창립됐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9월 말 기준 자산 4천959억원을 달성했다. 조합원은 2만5천79명으로 전남권 신협 중 1위, 광주·전남 88개 신협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 발전했다.

당시 부실 채권 비율이 8% 수준이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한 끝에 현재 부실 채권 비율은 1%대로 낮아져 자산 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성철 이사장은 "투명한 경영과 조합원이 주인이다"는 경영 원칙으로 침체돼가는 나주지역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가치 실현 경영을 통해 최고의 신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이사장은 "첫 번째 지점인 빛가람지점 개점을 통해 한번 더 눈부신 성장의 발판을 삼겠다"며 "1년 전부터 환골탈태의 각오로 이사장 임명까지 자진 동결했으며 전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정종환기자

최근 경영 성과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의 47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 영업이익인 20억원 안팎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성과다. 영업이익은 다시 조합원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또한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모든 금융 수수료(365코너 이용,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협은행 등),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이체 수수료도 무료화해 지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윤성철(사진) 나주신협 이사장 취임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업 허용

완도군은 17일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은 자동차 야영장과 비교해 등록 기준·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을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 8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불합리 규제를 지속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함평군, 국향대전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함평군은 최근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성공 개최를 위해 축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진행된 교육은 이상익 군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친절교육, 축제 운영 현황·프로그램 설명, 활동 요령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지에 강사는 '친절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친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11월 5일부터 17일간 개최되는 국향대전에서 6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군립미술관, 자연생태관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며 축제 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함평=김연수기자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텝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도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듈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 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로 더 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중력 | LS프레임 | 세미싱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패시스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를 | 인체공학학 L 프레임 | 온열 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 기능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